



※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. (1~2)



1 어떤 마음을 전해야 할 상황입니까? ()

- ① 기쁜 마음 ② 미안한 마음
③ 신나는 마음 ④ 부러운 마음
⑤ 걱정하는 마음

2 ㉠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말을 생각하여 쓰시오.
()

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 (3~4)

1교시는 사회 시간이었다.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시간이었다.
우리 모둠 발표자는 나였다. 앞 모둠 발표가 거의 끝나가자 나는 가슴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했다.
'어찌지? 실수하면 안 되는데.....'
발표 내용이 갑자기 뒤죽박죽되는 느낌이었다.
우리 모둠 차례가 되었고 겨우겨우 발표를 끝내고 자리로 돌아왔다. 얼른 이 시간이 지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.

3 '나'의 가슴이 쿵쿵쿵쿵 뛸 까닭은 무엇입니까?
..... ()

- ① 빨리 발표를 하고 싶어서
② 발표할 때 실수할까 봐 걱정되어서
③ 좋아하는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
④ 발표를 잘 하고 칭찬을 받은 것이 기뻐서
⑤ 우리 모둠 차례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서

4 이 글에 나타난 '나'의 마음을 쓰시오.
()

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 (5~6)

이튿날, 운동회에 나갈 선수를 뽑기로 했어요. 모두 들뜬 마음으로 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.
“제비뽑기로 선수를 뽑자. 누구나 한 경기씩 나갈 수 있도록 말이야.”
“말도 안 돼.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?”
아이들은 투덜거리며 제비를 뽑았어요. 기찬이의 제비뽑기 순서가 다가왔어요. 기찬이는 '이어달리기'가 쓰인 쪽지를 뽑았어요. 울상이 된 기찬이를 보고 친구들이 물려들었어요.
“안 봐도 질 게 뻔해!”
“어떡해! 이어달리기가 가장 점수가 높은데!”

5 기찬이는 어떤 경기에 나가게 되었는지 쓰시오.
()

6 쪽지를 뽑았을 때 기찬이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? ()

- ① 친구들의 응원을 듣고 기뻐할 것이다.
② 좋아하는 운동을 하게 되어 신이 났을 것이다.
③ 운동회에서 큰 활약을 보여줄 생각에 뿌듯했을 것이다.
④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 줄 생각에 기대가 되었을 것이다.
⑤ 이어달리기 점수가 가장 높은데 달리기를 잘 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다.

7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여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말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? ()

- ① 네가 도와줘서 고마워.
② 그렇게 하지 말랬잖니?
③ 네가 기뻐해 줘서 나도 기뻐.
④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 내 마음이 아파.
⑤ 너도 그럼 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, 우리 함께 그려 볼까?

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 (8~10)

국기에는 그 나라의 자연이 담겨 있어.
캐나다에는 설탕단풍 나무가 많이 자라.
설탕단풍 나무는 캐나다처럼 추운 날씨에 잘 자라거든.
가을에 붉은색으로 단풍이 들면 얼마나 고운지 몰라.
캐나다 사람들은 설탕단풍 나무에서 나오는 즙으로 달콤한 메이플시럽을 만들어 먹기도 해.
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은 국기에 빨간 단풍잎을 그려 넣었어.

8 국기에는 그 나라의 무엇이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까? ()

- ① 땅 ② 전설
③ 자연 ④ 사람
⑤ 역사

9 캐나다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 이름은 무엇인지 쓰시오.

()

10 이 글의 내용으로 볼 때, 캐나다 국기로 알맞은 것에 ○표를 하시오.

		
(1) ()	(2) ()	(3) ()

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 (11~13)

오늘은 학교에서 『바위나리와 아기별』이라는 책을 읽었다. 앞표지에 있는 바위나리와 아기별 그림이 무척 예뻐서 내용이 궁금했기 때문이다. 이 책은 바위나리와 아기별의 우정 이야기이다.

바위나리는 바닷가에 핀 아름다운 꽃이었다. 하지만 친구가 없어 늘 외로웠다. 어느 날 밤, 아기별이 하늘에서 내려와 둘은 친구가 되었고, 바위나리와 아기별은 밤마다 만나 즐겁게 놀았다.

그러던 어느 날, 병이 든 바위나리를 ㉠간호하던 아기별은 너무 늦게 하늘 나라로 올라가 그 별로 다시는 바닷가에 내려오지 못했다. 아기별을 기다리던 바위나리는 점점 시들다가 그만 바람이 세게 불어 바다로 날려 갔다. 아기별은 밤마다 울다가 빛을 잃어 바다로 떨어졌다. 바위나리가 날려 간 바로 그 바다였다.

11 글쓴이가 읽은 책의 제목은 무엇인지 쓰시오.

()

12 이 글에는 독서 감상문의 특징 중 무엇이 나타나 있는지 두 가지를 고르시오. ()

- ① 책 내용
② 인상 깊은 부분
③ 책을 읽게 된 까닭
④ 책에서 고치고 싶은 점
⑤ 책을 읽은 뒤에 든 생각이나 느낌

13 ㉠ ‘간호하다’의 뜻을 짐작하여 쓰시오.

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 (14~16)

먼저, 병원에서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자신의 증세에 맞는 감기약을 처방받습니다. 어른들이 먹는 감기약이나 언제 샀는지 모르는 감기약을 먹으면 오히려 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. 어린이들이 감기약을 먹을 때에는 꼭 의사의 지시에 따릅니다.

감기약은 끝까지 먹는 게 좋습니다. 감기약을 먹다가 몸이 나았다고 생각해 그만 먹으면 안 됩니다. 중간에 마음대로 감기약을 먹지 않으면 감기가 더 심해지거나 나중에 감기약을 먹어도 낫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의사가 처방한 날짜만큼 먹어야 합니다.

감기약을 먹을 때에는 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. 우유나 녹차, 주스와 같은 다른 음료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. 또 물 이외에 밥이나 빵을 같이 먹어서도 안 됩니다.

감기약을 먹는 시간을 놓쳤다고 다음에 두 배로 먹어도 안 됩니다. 두 배로 먹는다고 감기약 효과가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몸에 부담만 될 뿐입니다. 감기약은 정해진 양만큼만 먹어야 합니다.

14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.

• ()을/를 먹을 때 주의할 점

15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? ()

- ① 감기약은 끝까지 먹는 게 좋다.
- ② 감기약은 정해진 양만큼만 먹는다.
- ③ 감기약은 밥이나 빵과 함께 먹는다.
- ④ 감기약을 먹는 시간을 놓쳤다고 다음에 두 배로 먹으면 안 된다.
- ⑤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자신의 증세에 맞는 감기약을 처방받는다.

16 이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.
..... ()

- ① 차례가 정해져 있다.
- ② 물건을 만드는 차례를 알려 준다.
- ③ 일할 때의 주의할 점을 알려 준다.
- ④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글이다.
- ⑤ ‘첫 번째, 두 번째’와 같은 차례를 나타내는 말에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.

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 (17~19)

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한 시, 소방서에서 병주가 가장 기대하던 소방관 체험으로 활동을 시작했다. 소방관 복장을 하고, 소방차를 타고 출동하고, 불이 난 곳에 물도 뿌렸다. 원래 소방관에는 관심이 없었는데, 체험해 보니 내 적성에도 잘 맞고 보람도 있어서 미래에 소방관이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.

17 이 글에서 글쓴이가 한 직업 체험은 무엇인지 쓰시오.
()

18 글쓴이가 소방관이 되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고르시오. ()

- ① 보람이 있어서
- ② 적성에 잘 맞아서
- ③ 소방관 복장이 잘 어울려서
- ④ 소방차를 타는 것이 좋아서
- ⑤ 원래부터 소방관이 꿈이어서

19 이 글에서 시간 흐름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느 것입니까? ()

- ① 불
- ② 보람
- ③ 한 시
- ④ 소방서
- ⑤ 소방차

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 (20~22)

“안녕, 쿠부.”

쿠부는 무톨라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

“내가 안녕이라고 말했잖아, 쿠부.”

쿠부는 눈을 감더니 아무 말 없이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. 쿠부의 머리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자 무틀라는 아주 크게 소리쳤어요.

“쿠부, 내가 안녕이라고 말했잖아!”

“㉠그래서 어찌라고, 이 꼬맹이야! 감히 내 아침잠을 방해하다니!”

“쿠부, 그렇게 거만하게 굴 것까진 없잖아! 너는 몸집이 가장 크다고 네가 가장 힘이 센 줄 알지? 난 줄다리를 하면 널 언제든 이길 수 있어!”

“네가? 너 같은 꼬맹이가? 푸우하하하!”

“내일 아침, 내가 뱃줄을 가져올게. ㉠그럼 내가 얼마
나 힘이 센지 알게 될 거야!”

무툴라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.

20 무툴라가 인사를 했을 때 쿠부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? ()

- ① 아침밥을 먹었다.
- ② 반갑게 인사를 했다.
- ③ 아무 말 없이 무시했다.
- ④ 무툴라를 피해 멀리 가 버렸다.
- ⑤ 무툴라에게 줄다리기를 하자고 했다.

21 ㉠으로 볼 때 쿠부의 성격은 어떠합니까? ()

- ① 다정하다.
- ② 영리하다.
- ③ 어리석다.
- ④ 잘난 체한다.
- ⑤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.

22 ㉠을 말할 때 어울리는 무틀라의 몸짓을 생각하여 쓰시오.

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 (23~25)

호랑이: 나그네님, 제발 문고리를 따고 문짝을 좀 열어 주십시오.

나그네: 뭐요? 문을 열어 달라고? 열어 주면 뛰쳐나와서 나를 잡아먹을 것이 아니요?

호랑이: 아닙니다. 제가 은혜를 모르고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? (앞발을 비비며 자꾸 절을 한다.)

나그네: 허허, 알았소. 설마 거짓말이야 하겠소? 내가 이 께짝 문을 열어 주리다. 그 대신 약속을 꼭 지키시오.

호랑이: 네, 얼른 좀 열어 주십시오. 배가 고파서 눈이 빠질 지경입니다.

나그네가 문을 열자, 호랑이가 뛰어나와서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덤빈다.

나그네: ㉗이게 무슨 짓이오? 약속을 지키지 않고…….

호랑이: 하하, 께짝 속에서 한 약속을 께짝 밖에 나와서
도 지키라는 법이 어디 있어?

23 나그네의 성격은 어떠한지 쓰시오.

()

24 호랑이의 말투는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? ()

- ① 슬픈 말투 → 겁먹은 말투
- ② 부러운 말투 → 미안한 말투
- ③ 간절한 말투 → 뻔뻔한 말투
- ④ 다정한 말투 → 친절한 말투
- ⑤ 거만한 말투 → 억울해하는 말투

25 ㉠의 말에 어울리는 나그네의 말투를 생각하여 쓰시오.

()